



강진 김명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 보성 작은영화관, 개관 1달 만에 관람객 4000명 돌파

### 작은 영화관 중심 농어촌지역 문화수혜 확대



보성군은 지난 달 5일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내 개관한 보성작은영화관의 누적 관람객 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보성작은영화관은 동시 상영관으로 순천이나 광주까지 나가서 최신 영화를 관람해야했던 불편을 줄이고, 저렴한 관람료, 최신 영사시설 및 탄탄한 관람석, 친절함 서비스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부모님과 함께 영화 관람을 해보는 추억을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각종 SNS, 블로그를 통해 보성 작은영화관 홍보대사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22일 보성작은영화관은 '어린이의뢰인', '더보이', '알리언',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기생충' 등이 전

국 동시 개봉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2D 6,000원, 3D 8,000원으로 대형 극장가의 60~70% 수준이며, 군인·청소년·장애인·국가유공자·65세 이상 어르신은 5000원이다.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09:00~24:00)이며 매일 2개관에서 총 12회 이상 영화가 상영된다.

영화 예매 및 상영시간표는 보성작은영화관 홈페이지 (<http://bosong.cinema.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작은 영화관' 앱을 설치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 작은영화관(☎852-7050)에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끝나면 군민들이 보성작은영화관에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향토시장에서 장 보고, 영화도 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문화 경제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순천시,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 위한 시민 워크숍 개최

### '더 순천다운'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 나서



순천시가 최근 시청 청사디자인실에서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는 '생태와 정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순천'을 가장 잘 표현한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도시브랜드 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 통합 도시브랜드를 개발해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지역민의 화합과 도시 이미지 통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일 시간부회의를 통해 '도시브랜드 개발 기본 방향'에 대한 1차 보고 이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브랜드 개발 방향 및 콘셉트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민 25명과 용역사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 주요 키워드와 콘셉트를 정리하고, 앞으로 브랜드 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 도시브랜드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의 심볼마크와 슬로건,

캐릭터 등이 개별화되어 활용도가 낮고, 도시의 생태적인 정체성을 담아 내지 못한 점 등 그동안의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합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을 지난달부터 착수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시민의 자긍심을 담아 누구나 생애도시 순천을 떠올릴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브랜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함평군, 이동양봉 농가 현지 기술지원

함평군은 지난 14~15일 대구, 경북 칠곡, 성주, 고령 등 이동양봉 농가를 찾아 고품질 벌꿀 다량 채밀 현지 기술지원에 나섰다.

현재 군 이동양봉 농가는 27농가(2160군)가 대구광역시, 경남북으로 이동해 아까시 벌꿀을 채밀하고 있으며, 꽃을 따라 충북 경기도 강원도까지 이동하며 한달

기타 타지에서 고품질 벌꿀을 채밀한다.

군 이동양봉에 나선 양봉연구회 회장(학교면 정혜선)은 "우리 지역 밀원이 부족하여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으나 대구모로 사육하는 이동양봉 농가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채밀함으로써 관내에 남아있는 고정양봉 농가의 밀원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항만) 관계자는 "이동양봉 농가의 고품질 벌꿀 다량채밀을 위해 아까시나무 개화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수확량을 높이고 미래의 양봉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밀원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 구례군, 단감 수출유망단지 집중컨설팅 개최

구례군은 농촌진흥청, 전남도와 합동으로 '지역수출유망단지 구례 단감 집중컨설팅'을 17일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감 수출 농업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컨설팅은 농촌진흥청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최근 육종된 단감 국내육성품종 재배 및 단감 수출 시 재배단지 농약관리와 유통 등 향후 단감 수출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영농기술을 교육하였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구례군은 2015년부터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매년 60톤 이상 신선농산물을 해외에 수출 해왔으며 앞으로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뿐만 아니라 현장 영농기술과 관련한 농업인 교육을 확대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광양시, '치매 돌봄 로봇' 보급

광양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 시행한 '사회현안 해결 지능정보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지능정보기술·서비스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아동 ▲치매 환자 ▲북극노인을 위한 과제 공모를 실시했으며, (주)로보케어, (주)쿠로엔시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한 광양시가 지난 5. 7.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현안 해결 지능정보화 사업'은 총사업비 17.1억 원(국비 9.1, 시비 5, 민간 3)을 투자해 말벗, 일상 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 로봇 6대를 보급하는 한편 로봇 실증을 통해 돌봄 로봇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치매 돌봄 로봇'은 그림 맞추기, 단어 만들기, 숫자놀이 등으로 활용용 콘텐츠 10종, 시장 보기, 요리 만들기, 전화 받기 등 도구 활용 콘텐츠 10종과 응급상황알림 및 맞춤형 일정관리 기능 등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을 말한다.

경증 치매환자 가정과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 보급되면 치매환자 관리와 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보급 사업' 선정에 이은 쾌거로 시는 민선 7기 미래도시 공약사항인 '로봇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산업과 복지를 융합한 신개념 복지서비스의 지평을 열게 됐다.

광양=김승호 기자

## 고흥군, 우수 농수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 네팔·인도·카타르와 수출 협약 체결



고흥군은 네팔·인도·카타르 기업대표 및 관내 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우수 농수특산물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네팔 Shah Group(대표 RAM BISWAS SHAH)·인도 ELNC(대표 KAJI GURUNG)·카타르 AXIS(대표 ANJAN SHRESTHA)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각각 50만불, 총 150만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고흥 농수특

산물 수출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상호 간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네팔·인도·카타르가 수출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흥 농수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어 방문단은 협약식 이전 고흥군 수협과 무원농협 유자 가공사업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수출 상담을 실시했으며, 유자차·수산물 등을 시작으로 점차 수입 품목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한운섭 기자

## 영광군, 국화 분재교육 인기...총 15회 진행

영광군은 지난 4월 국화 분재교육 개강식을 시작으로 5월 16일 까지 네 차례 교육을 실시했다.

국화분재교육은 사전에 미리 접수를 받아 선발된 4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5회 교육이 진행되며,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어 군민의 정서 함양과 여가활동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국화 분재와 북쪽국 등 관상용 작물국화에 관한 이론 교육과 그에 따른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별 특성에 맞는 수형을 선택하여 실습할 수 있어 농가 호응도가 아주 높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화분재는 정식 후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생들의 작품이 멋진 모습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재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http://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장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